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의 아니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하나님의 생각

본문: 이사야 55:6-9절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이며, 이사야(여호와와 구원이시다)는 남왕국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총 66장으로 된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예언이 기록된 1-39장과 바벨론에 멸망한 후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한 40-66장으로 구분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유대의 죄를 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목적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그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 작용을 말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은 물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현상에 관해 판단이 180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에 부딪히고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양심을 민감하게 작동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시로 비춰보고,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천원식당’을 아시나요? 원래 이름은 ‘해뜨는 식당’입니다.

광주 대인시장에 있고요. 천원식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1000원 내고 푸짐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7월 문을 연 식당은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이웃 사랑의 최고봉으로 꼽혔죠. 교회에서도 예화로 많이 사용됐고요. 그런데 천원식당을 연 김선자 할머니가 지난 18일 대장암 투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기사를 검색해 봤죠. 개업 초기에 할머니 사연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 단서를 미약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셨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대인시장상가상인회가 발행하는 ‘우리동네뉴스’는 2010년 8월 할머니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초기 식당을 이끌어 갈 수 있던 것도 교인들 덕분이라고 하네요. 우리동네뉴스는 “서너 가지 반찬에 된장국 밥 한 그릇, 누가 봐도 1000원은 훨씬 넘는 밥상”이라며 “반찬은 같은 교회 성도들이 손수 만들어 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사랑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일흔을 앞둔 할머니에게 식당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동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딱 죽어볼것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연 지 보름쯤 지났을 때 하루 손님은 100명이 되었다네요. 외지에서 온 독거노인과 학생 이 60% 정도였다고 하고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천원식당을 애용했습니다. 우리동네뉴스는 “하루 식당 매출이 10만원인데 음식재료 준비에만 들어가는 돈이 17만원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장사”라면서 “간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돕기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을 연 뒤 온몸에 땀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몸이 피곤해도 어려워져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 편히 쉬기도 어렵다”며 “**나누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풍요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만큼 힘이 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을 2년쯤 운영했을 때 할머니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식당이 운영될 수 있게 늘 걱정하셨고요. 다행히 주위의 좋은 분들이 식당 운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식당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셔서 주위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직전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한 할머니를 보며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나, 그리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던 제 모습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기독교는 때론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나쁜 행동을 하냐는 것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 ‘천원식당’ 김선자 할머니가 그 좋은 예일 것 같고요. 할머니같은 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미션라이프 / 교회누나의 천국이야기 3

THINK

내 삶 조차 버거워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웃들의 식탁을 염려했던 할머니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가장 큰 계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낼 영혼들을 생각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7월 27일
마을특송	온유	청장년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대표기도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한명문 권사	한선미 권사	장정숙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본당청소	섬김	살롬.청장년	온유	(중식없음)	(중식없음)
중식봉사				임마누엘	무지개

주요광고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확대사역자회의 / 일시: 7우리 24일(주일) 오후 예배 후 / 장소: 3층 본당
- 제 2회 좋은이웃 불링대회는 코로나재확산으로 인하여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였습니다(스포츠선교위원회)
-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하여 당분간 교회에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교사 및 이동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해 소량의 김밥을 준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요 향기로운예배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방학을 보냅니다. / (7.21~8.18)
- **교육부서 여름행사안내** /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유초등부(꿈쟁이) 여름성경학교 / 주제: What is love? / 일시: 8.6(토)~8.7(주일) / 장소: 좋은이웃교회 7층
- 학생부(로고스) 하계 수련회 / 주제: 예수님 습격사건 / 일시: 8.6(토)~8.7(주일) / 장소: 좋은이웃교회 6층
- 청년부(청년옥합) 하계 수련회 / 주제: 회복, 다시 세움 / 일시: 8.14(주일)~8.15(월) / 장소: 용인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2권사회 / 다음 주: 3권사회)

■ 교 우 소 식 ■

- 치유 중보 기도 - 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
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최진수 장로/황성원 전도사/장순희 집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